

‘가을 정취 만끽’...강진만 춤추는 갈대 축제 열린다

오는 25일부터 9일간 강진만 일원서
‘베트남인의 날 in 강진’ 교류 장 마련
친환경 생태 체험 등 프로그램 풍성

제10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 축제가 오는 25일부터 11월2일까지 9일간 강진만에서 열린다. 9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문화·생태 축제’를 주제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특히 지난해보다 문화 다양성과 친환경 생태 체험, 그리고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강화돼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축제 마지막 날에 진행되는 ‘베트남인의 날 in 강진’ 행사는 광주·전남지역에 사는 베트남인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교류의 장으로, 지난 9일 강진군문화관광재단과 광주·전남베트남고민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댄스와 노래 공연, 전통의상과 음식 체험 등을 통해 베트남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한다.

이번 축제에는 생태환경 축제로서의 정체성



관광객들이 강진만 갈대숲을 걷고 있다.

〈강진군 제공〉

을 살린 업사이클링 체험도 확대된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K-콘텐츠 열풍에 맞춰 한 국민화뮤지엄과 함께 한국 전통 민화인 ‘까치호랑이(작호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친환경 공예와 페플라 스틱 뚜껑을 재활용한 키링 만들기 체험을 통해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색다른 재미를 주는 동시에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울 계획이다. 트로트와 전자 현악, 전자바이올린, 와인이 함께하는 재즈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연일 이어져 가을밤의 낭만을 풍성하게 채운다. 아이들을 위한 키즈존 역시 규모를 확대해 슬

라임 만들기, 비눗방울 놀이, 블럭·미니카 체험, 어린이 슈퍼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말에는 우유 댄스파티와 뽀로로, 브레드 이발소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캐릭터 공연이 어린이 싱어롱쇼가 펼쳐져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 전망이다.

전문 생태 해설사와 함께하는 ‘갈대밭 생태 탐험대’ 프로그램도 마련돼 고니, 칠게, 장뚝이 등 강진만에서 만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지역과 함께하는 참여형 행사도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강진 쌀귀리 홍보관과 특산물 판매관(초록민음·노을장), 가을 국화전시 등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한다.

전남교육청과 강진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2025 강진 공생 한마당’에서는 전남 22개 시·군 초·중·고생과 생태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해 환경과 교육의 가치를 공유한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 한마당, 어업인의 날, 재향군인의 날, 읍·면 대항 씨름대회 등 지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도 마련된다. 더불어 ‘제11회 전남도지사배 생활체육 등산대회’가 강진 일원에서 열려 자연과 스포츠가 어우러지는 경험도 선사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올해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는 10주년을 맞아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며 “다양한 문화와 생태 체험,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해남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본격화

산이 부동산지구 민관협의회 발족
1조원 투입...803ha·600mw급

해남군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민관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해남 산이 부동산지구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사진〉 민관협의회는 민간 공동위원장과 전남도·해남군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영농조합법인 관계자, 전문가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이익 공유 방안 논의, 지역 상생 발전 전략 마련 등 집적화단지와 관련한 실질적인 협의 창구 역할을 맡는다.

해남군은 산이면 부동산지구 간척지 803ha 일원에 600mw급 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사업 시행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되



며약 1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군은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해 주민들이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전력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RE100 전용 산업단지에 우선 공급돼 해남군이 추진하는 RE100 국가산단 조성 사업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전망이다. /해남=박필용 기자

명현관 해남군수는 “간척지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해남군이 전국 최초”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신성장 산업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농어촌 대전환의 표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의 진정한 수혜자가 농촌과 지역 주민이 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나주시 ‘에너지영재교육원’ 설립 협력

출연금·행정 지원 등 쉼터 신청 뒷받침

나주시가 지역 인재 육성과 미래 세대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부설에너지영재교육원 설립 지원에 나선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쉼터가 전남도교육청에 제출한 ‘에너지영재교육원 설치 및 운영 승인 신청’과 관련해 출연금 지원과 행정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뒷받침한다. 에너지영재교육원은 나주시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쉼터의 전문 교육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활용해 특화된 에너지 분야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의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설립 승인이 완료되고 대학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면 교육과정 편성, 학생 선발, 시범수업, 공개 설명회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학생들이 에너지 전문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지역 교육 발전과 특화된 영재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쉼터, 전남도나주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학생들에게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준환 기자

완도군 정화 운반선 ‘청정 12호’ 취항

완도군은 “최근 해양쓰레기 수거와 적조 및 해양 오염 방제 등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다목적 친환경 정화 운반선 ‘청정 12호’(사진) 취항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취항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안용운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 이철·신의준 전남도의회 도의원, 주민 등이 참석해 ‘청정 12호’ 출항을 축하했다. ‘청정 12호’는 124t, 적재 중량 30t 규모의 친환경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해 대기오염 저감 효



과와 특히 크레인과 부속선을 갖춰 상·하역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 입도가 어려운 12개 읍·면의 외딴섬과 무인도를 찾아가 해양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해양오염 및 적조 발생 시 방제 활동 지원에도 사용될 계획이다. /완도=윤보현 기자

영광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전

농식품부 전국 6곳 선정 발표
군민 1인당 매월 15만원 지급

영광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나선다. 9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소멸 위기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기본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2026~2027년 2년간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8개 군 가운데 6곳을 선정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공모 접수는 오는 13일까지이며 17일 평가 후 최종 발표된다. 영광군은 지난해 장세일 군수 취임 이후 에너지 기본소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도 기반을 다져왔다.

2023년 12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공유제를 시행했고 올해 ▲기본소득 전담팀 신설(1월) ▲조례 제정(6월) ▲위원회 출범(8월) ▲기본계획 및 공유화 기금 조례 제정(9월) 등을 통해 제도적 틀을 완비했다. 특히 해상풍력·태양광 발전사업자와 협의를 추진하며 ‘햇빛·바람·바다’에서 발생한 이익을 군민과 나누는 에너지 공유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영광군은 정책 기반과 함께 군비 27억원을

투입해 전 군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 651억 원(투입 대비 2배)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 이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성과로 이어져 지난 4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선정됐으며, 오는 12월부터 군민 1인당 연 5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민생경제회복지원금과 기본소득 정책 연계로 인구가 전년 대비 1천710명 늘어나며 5년 만에 5만 3천명을 회복했다.

영광군은 대선 당시 기본소득의 국가적 필요성을 제기해 ‘국가 차원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전남 지역 공약에 반영시켰다. 전남도 또한 기본소득 제도화를 목표로 전남형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농식품부 공모는 지방정부의 정책이 국가 차원으로 확장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2027년 에너지 자원이 본격 확보되기 전까지 국가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소득 모델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모 협력단(TF)을 구성해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기본소득 혜택을 누려 소비가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2일 영광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결의대회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신안군 지역보건의료 성과 빛났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관왕

신안군이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25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관왕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9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서울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홀에서 열린 성과대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데 이어 개인 발전 분야에서도 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탁월한 보건의료 정책 추진 역량을 입증했다. 〈사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의료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보건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평가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 중 2차년도(2024년) 시행 결과와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은 ‘건강이 샘솟는 1004섬 신안’을 비전으로 ▲지역사회 보건의료 역량 제고 ▲지역사회 기반 건강증진 체계 구현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확보를 주요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고 4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김현희 신안군 보건소장은 “이번 수상은 군민 건강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해 온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와 군의 적극적인 보건정책 추진의 지가 만들어진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홍 기자